

## 꿀찌에게 갈채를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한때 잘 나가던 한국 축구가 선수들의 피땀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들어 각종 국제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1등 자리를 빼앗기자, 우리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축구협회, 감독, 선수들을 사정없이 두들긴다.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그들을 구름 위에 태워 띄우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정없이 흔들어 땅 속으로 처박아버린다.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우리들 가슴속에 있는 냄비 근성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이다. 지방대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월은 너무나 잔인한 달이다. 해마다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지면 그 점수를 잣대로 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대학인 양, 대학들의 서열 매기기를 거리낌없이 해 대는 서울 공화국 중심의 우리 언론의 속성 때문이다. 지방대학은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대학으로 분류되어 3류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러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입시철만 되면 우수 학생 유치에 목을 매달아도 소득이 없다. 이러한 언론들의 지대한 공헌(?)에 의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거론되는 서울 소재 대학들만이 1등 대학이라는 인식이 어느새 전국적으로 서울지방 아닌 지방에서도 만연해 있는 까닭이다. 올해도, 수능시험 수석 학생은 예년과 변함없이 언론의 스포츠를 받게 될 것이다. “과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학교수업만으로 공부를 했고”, 제2의 슈바이처가 되기 위해 의대를 진학하겠다는 거나,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관이 되기 위해 법대에 진학하겠다는 모두가 한결같은 대답들.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이민을 결심한 어떤 지방대학 출신 사람을 주위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래저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1등 제일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지닌 속성 중의 가장 인간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 남을 밟고 내가 올라서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생활방식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일진대, 어쩌면 1등만이 존중받고 관심을 끄는 현상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1등만이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그 밖의 보통사람들에게도 할 말은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2등이나 3등이지만,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에 비해, 오로지 1등만이 대접받는 우리사회는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는 모두가 오로지 1등이 되고자, 당파싸움이 횡행했고, 권력투쟁이 피를 불렀다. 1등?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학문하는 우리에게도 1등을 위한 싸움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1등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학자의 최고의 희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진대, 우리 언론들은 너무도 학자들을 들볶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 올 때면 우리 언론들은 예외 없이 우리는 언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장탄식을 하는 글을 내 보낸다(평화상은 빼고...). 연구라는 것을 무슨, 매일 황금 알을 낳는 황금거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사흘이 멀다하고 하나씩 만들어지는, 노벨상을 겨냥한 이상한 연구비 지원책이나 제도도 따지고 보면 어서 빨리 1등 국가가 되지 못하는 조바심에서 기인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분명한 것은, 과학자들의 1등 연구능력은 결코 1등을 강요한다고 해서 발휘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1등

에게만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그 1등이 더 확실한 1등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 선수의 1등을 만들기 위해 선두그룹에 서서 다른 1등을 견제하는 2등과 3등 동료 선수의 역할이, 혼자 뛰는 1등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마라톤의 상식이다. 극소수의 1등만을 위해 모두가 2등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2등이 되어야 하는 제도보다는, 모두가 2등이 되는 제도를 통해 평균적으로는 그 개인들이 속한 사회나 단체, 그리고 국가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며 보편적인 진리이다.

자연의 진리는 그저 주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발견되는 것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이만큼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불변의 진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진정한 1등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 진정한 1등 과학 입국이 되려면, 소수의 1등보다는 많은 2등 과학자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2등속에서 진정한 1등의 과학자가 육성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노벨상도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진정한 1등이 되어 인류 역사상 영원히 이름을 빛내고 있는 아인슈타인 혹은 뉴턴 같은 대학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1등 학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역사상의 상식이다. 2등, 3등, 나아가서, 언젠가 유행했던 소설의 제목처럼, 꼴찌에게도 갑채를 보내는 건강한 사회에서만 진정한 1등이 1등으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손에 땀을 지게 할만큼 얹치락뒤치락하며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경기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게임보다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나, 연구원들, 심지어, 대학원생들까지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건이 좋아서,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남보다 50 m 앞선 출발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여건에서 남보다 100 m 뒤떨어져 달릴 수도 있다. 100 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는, 42.195 km를 쉴 새없이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더 빛나는 월계관을 쓰는 법이다. 출발이 늦어도 지구력이 있고 완주를 할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늦게 출발한 자신이 100 m 앞서 먼저 달린 다른 사람들 보다 결승점의 테이프를 먼저 끊을 수도 있게 마련이다.

필자가 속한 대학의 영문학을 전공하는 동료교수가 외국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어느 유학생에 관련하여 들려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입학허가를 위한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에게 담당교수가 면접을 시작하며 학생의 이름을 물었다.

“What is your name?”

그런데, 한참동안 대답을 못하던 학생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런가 싶어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려는 순간, 그 학생은 침묵을 깨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Whenever I am asked that kind of question, I am confused because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say Chang Sik Ha or Ha Chang Sik.”(나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내가 창식 하 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하 창식 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가? 항상 1등만 해 온 그 학생은 영어에서도 1등으로 정확한 영어복문을 구사하지 않으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고심을 한 것이었다. 이쯤 되면, 1등에 대한 편집증도 과히 병중의 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